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0호 【루계 제23272호】 주체99(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4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수리아아랍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시정운동후 귀국인민은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와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수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주체99(2010)년 11월 15일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이란신문과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7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추진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조선인민군 근위제210군부대의 조압수조공사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가 조업하면 후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피땀이스민 이 자랑찬 창조물을 볼수 없는것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한 병사들의 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의 희천발전소건설을 2012년전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근위 제210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신문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은하수 《10월음악회》 결속공연을 관람하신 소식도 게재하였다.

8일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수령님과 김정일수령님은 위대한분들이시다!》

남조선의 한 로동자가 절세의 위인들을 열렬히 칭송

남조선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14일 《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된 남조선의 김 아무개 로동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하여 파쑈광들을 전률케 하였다.

그는 《폭풍》이라는 필명으로 지난 6월부터 인터네트싸이트 《싸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을 여러차례 올렸다고 한다. 인터네트싸이트 《싸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남조선 각계의 진보적인사들이 운영하는 싸이트로서 2000년경에 개설되였다고 한다. 이 싸이트는 지난 7월말 남조선당국의 탄압책동으로 강제폐쇄되였다가 8월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회원수는 올해 6월의 5 500여명으로부터 10월에는 6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김 아무개 로동자가 이 싸이트에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 남조선당국은 그를 체포하였다.

그는 구속되기 전에 《싸이버민족방위사령부》싸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였다.

《나의 신념은 강철과 같이 변함이 없으며 경찰조사에 림했던 의연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재판에 림하겠습니다.

철기전사(철갑을 입은 용감한 기병)들을 대표하여 굴함없이 실천하며 나의 의지는 구속여부를 떠나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애국투사, 민족의 자주,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웨친 선렬들의 고귀한 행동을 따라 미미하지만 후배가 조그마한 발걸음을 떼였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철기전사여러분!

그대들이 자랑스럽고 저에게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위대성을 칭송한것이 어떻게 죄로 되는가.》고 법관들에게 따지고들면서 《김일성수령님과 김정일수령님은 위대한분들이시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다.》고 자기의 신념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인들을 경모하고 공화국을 동경하는 글과 영상편집물들을 인터네트에 계속 올리려는 자기의 신념은 《강철같이 변함없다.》고 당당하게 웨쳤다고 한다. 그는 1시간나마 진행된 재판과정에 너무나도 자신만만한 태도와 거침없는 표현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우리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였다. 그의 이러한 담차고 신념에 넘친 소행앞에서 검사들은 질겁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확고한 신념에 따라 공화국의 체제를 찬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한편 그의 용감하고 의로운 행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의 글들이 인터네트싸이트들에 수많이 실리고있다.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여러 인터네트싸이트들에는 《진실앞에 당당한 저 모습에서 우리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고 하면서 북녘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안되고 좋아한다고 표현도 할수 없게 하는 파쑈적인 《보안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랐다. 특히 《산 아이》라는 필명의 한 인터네트리용자는 조선민족의 존엄은 선군정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세력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북녘의 덕분에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북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진리》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을 열렬히 동경하는 김 아무개 로동자의 정정당당한 행동은 우리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풍모, 고매한 덕망에 대한 끝없는 매혹으로부터 출발한 진실하고 순결한 사상감정의 정화이며 분출이다.

절세의 위인을 경모하며 따르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며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남조선 김 아무개 로동자의 의로운 소행은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과 그 빛발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에로 쏠리는 남녘의 강렬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건설되고 발전하는 조선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에서 《주체사상과 조선의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의 불레쩐을 발행하였다.

불레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모시였다.

불레쩐은 조선에서는 경제토대를 새롭게 구축하여 21세기의 요구에 맞는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높은 수준의 기계설비들도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내고있다.

초고전력전기로와 대형산소분리기, 주체철용광로, 원호식련속조피기 등이 그 실례이다.

조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자원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불레쩐은 조선에서는 오늘날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경제를 건설하는 사업도 나라의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건설되고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 관계없이 무섭게 용을 쓰며 일떠서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

강원도당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자랑을 안고 강원도당위원회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와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이 투쟁에서 힘있는 조직자, 동원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모든 당일군들이 바로 이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올해에 자기 단위와 자신들앞에 맡겨진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해당 단위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현지지도단위들이 올해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고있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나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신의 기상을 계속 힘있게 떨치도록 하기 위해 사상사업의 도수를 더 높이는 한편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집중시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쾅쾅 울리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과 관련한 해설담화, 강연자료 등을 시, 군들에 제때에 내려보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고있다.

당일군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서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크나큰 영광과 기쁨을 안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발전소건설지휘부 당조직에서는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건설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특히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겨울철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힘있게 내밀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우는 한편 올해 맡겨진 언제쌓기와 물길굴뚫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사일정이 드티지 않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공사의 많은 몫을 해제끼는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조직정치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켜 당이 지경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거리와 마을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문천시와 안변군, 고산군, 철원군, 금강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당위원회일군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과 대고조로 들끓는 전투장들에 내려가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위훈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도안의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도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창조되게 하고있다.

안변군의 지방공업공장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로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년간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계속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고성군과 평강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포전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봄내, 여름내 땀흘려 가꾼 낟알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인데 이어 탈곡을 와닥닥 끝내도록 힘껏 떠밀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지금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수행해온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안의 전체 일군들과 탄부들이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해 3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주의 탄부들은 지난 기간 불타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질좋은 석탄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제때에 보내주어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도 영웅적기개를 떨쳐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 석탄생산을 활성화하고 그 능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생산조직과 지휘를 그 어느때보다도 짜고들고있다.

석탄증산의 앞장에는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신리탄광, 연풍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있다. 올해에 들어와 매달 석탄생산계획과 기본굴진, 준비굴진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한 신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막장마다에서 련일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기세좋게 달려나가고있다. 2갱 채탄1중대를 비롯한 탄광안의 모든 탄부들은 막장관리를 잘하여 종전에 비하여 하루 최고 1.5배나 되는 석탄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연풍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연풍갱 굴진1소대를 비롯한 탄광안의 굴진공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계획을 수행하고 다음 교대를 도와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채탄소대 탄부들도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10월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룡림탄광과 립석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운반거리가 멀고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맡겨진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탄광기계수리공장에서도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뽐프와 압축기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화풍탄광, 태창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안의 다른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채굴장정비를 잘하고 석탄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매일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새 대상건설과 기술개건사업 힘있게 추진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 대상건설과 기술개건사업에 떨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8월초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련합기업소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상건설과 기술개건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새 대상건설과 기술개건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비롯한 과학연구기관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 대상건설과 기술개건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면서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카바이드전기로현대화공사와 원료직장 석회로건설, 성형직장 봉탄공정건설, 수평방사공정과 섬유공정개건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조립련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카바이드2직장에 현대적인 카바이드전기로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미 기초공사가 끝나고 로체기둥과 장치물제작 및 조립전투가 한창 진행되고있다. 여러 직장들에서 동원된 전투원들은 현대적인 카바이드전기로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그들은 카바이드전기로의 각종 뽐프실과 조작실을 비롯한 건축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또한 로바닥방수콩크리트치기와 굴착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한편 방수통들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수십개에 달하는 로체기둥을 짧은 기간에 제작해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새로운 석회로들을 건설하며 봉탄공정을 새로 일떠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석회로건설과 봉탄공정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수평방사직장, 섬유직장건축공사와 설비, 장치물들을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어지고있다. 여러 직장의 전투원들은 층막콩크리트치기와 벽체쌓기, 설비기초콩크리트치기를 비롯한 방대한 건축공사들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영웅적인 비날론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새 대상건설과 기술개건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기행

선군조국은 전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하리

자강도의 혁명사적지들을 찾아서 (2)

력사의 땅 강계시를 떠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렬한 전화의 나날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적기의 폭격을 뚫고 결단코 가신 못 잊을 사연을 안고있는 장강군 향하리에로 기행길을 이어갔다.

강계시에서 향하리까지는 얼마 멀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의 나날 길지 않은 이 로정을 반드시 헤쳐가지 않으면 안되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을 생각하느라니 절로 눈굽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혹한 시련이 수없이 가로놓여있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난관을 맞받아 나가시였으며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백승의 전략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더듬고있는 사이에 차는 향하리 소재지에 들어섰다.

소재지에는 모자이크벽화 《진격의 길에서》가 정중히 건립되여있었다. 벽화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 우리는 원쑤격멸의 길에 오른 인민군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멸적의 용맹을 북돋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경건히 우러렀다.

잊지 못할 불멸의 화폭을 가슴에 새기며 소마골방향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얼마간 들어가니 골안에 자리잡은 향하혁명사적지가 한눈에 안겨왔다.

사적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와 만난 류옥별강사는 소마강을 가로지른 다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있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에 오시였을 때에는 돌다리가 놓여있었습니다. 그날은 12월 중순경이여서 돌다리에 얼음이 덮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주저없이 돌다리를 건느시여 이곳에 불멸의 자욱을 찍으시였습니다.》

깊은 감동으로 가슴들먹이며 다리를 건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12월 여러날동안 계시면서 집무를 보신 집앞에 이르렀다.

당시 화전을 일구어 농사짓던 한 로인이 살던 그 동기와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준비성원들과 녀맹일군들, 전선탄원을 위해 조국으로 달려온 류학생대표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과 담화를 하시고 력사적인 회의준비도 하신 뜻깊은 집이였다.

《ㄱ》자형으로 된 농가의 가운데 방에는 잊지 못할 그 나날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여주는 영상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물거리는 초불밑에서 전원회의보고문을 작성하신 자그마한 두리반상이 소중히 전시되여있었다.

멀고도 험한 길을 헤쳐오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두리반상을 마주하시고 온밤을 지새우시며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

깊은 밤 몰려드는 피곤을 이겨내시느라 뜨락밖의 샘물가로 자주 오가시며 전원회의보고문을 한자한자 완성하신 우리 수령님의 끝없는 로고를 우리 정녕 다 알고있었던가.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크나큰 격정이 북받쳐올랐다.

사람들이여, 이 작은 두리반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작성되였고 승리한 조국땅에 일떠세울 전후복구건설의 설계도가 구상되였음을 삼가 가슴에 새겨안으시라!

숭엄한 마음을 안고 농가의 여러 방들에 보존되여있는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본 우리는 향하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사적관에는 자강도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된 곳이며 거기에서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과업이 토의되였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수령님께서 가필하시며 완성하신 전원회의보고문, 자신께서 사용하시던 거울을 집주인에게 기념으로 주신 사적물을 비롯하여 귀중한 혁명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사적관에 전시된 혁명사적물들에 깃든 잊지 못할 사연들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던 장소로 향하였다.

전원회의장소는 향하리 소재지에서 랑림군방향으로 5리정도 떨어진 리의 회덕골에 있었다.

회의장소입구의 좌측에는 혁명사적비가 정중히 건립되여있었다. 사적비에 새겨진 글발들을 새기며 우리는 원상그대로 꾸려진 뜻깊은 장소로 들어섰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곳은 해방전에 발전소물길굴공사를 하던 곳이였는데 그중 한 구간에 꾸린 방에서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고 한다.

굴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어있었다. 굴안에는 전원회의장소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방이 있었다.

강사는 이 력사적인 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제시되였다고 하면서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가리켰다.

력사의 그날을 되새겨주는 뜻깊은 사진문헌과 연탁, 주석단을 격정에 넘쳐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모든 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곳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보고와 결론에서 6개월간의 전쟁행정을 분석총화하시고 반공격전에서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적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며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작가, 예술인, 과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비행기나 땅크가 아니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강철같은 단결에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은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최고사령관을 믿고 미국놈들과 싸워이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해마다 경축하는 전승의 날이 바로 이렇게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비범한 선견지명에 의해 마련된것이라고 생각하니 한없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어 우리는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그때의 우리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가슴뜨겁게 전하여주는 뜻깊은 사적건물을 찾았다.

강사는 전원회의가 끝나자 이 고장 농민들은 소박한 저녁식사를 마련하고 어버이수령님을 이 집에 모시였다고 하면서 그날의 감동깊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날 농민들이 메밀국수가 마음먹은대로 잘되지 않아 다시 누르려고 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된 국수보다 잘 안된 국수를 누르기가 더 힘들다고 하시며 농민들의 송구스러운 마음을 대번에 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향하리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들먹이 차오르는 격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대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오늘의 향하리의 아름다운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산촌을 떠나 우리는 기행의 다음목적지인 장자산혁명사적지에로 향하였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숭엄히 그려보는 장자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고귀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의 넋이 력력히 어려있는 유서깊은 그곳을 그려보며 기행길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였다.

얼마후 설매골에 자리잡은 장자산혁명사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강철숙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장자산혁명사적관을 돌아보았다.

사적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39(1950)년 10월 장자산에 20여일간 계시면서 벌리신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많은 사적자료들과 귀중한 사적물들이 진렬전시되여있었다. 그중에서도 3호실에 모셔진 한상의 미술작품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작품은 주체39(1950)년 9월 22일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가셔야 할 혁명의 천리길의 로정과 함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하고있었다.

일찌기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뒤를 이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여기 장자산을 향하여 포연서린 천리길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전화의 그 천리길이 오늘은 선군혁명천만리로 끝없이 이어지고있다고 생각하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졌다.

깊은 여운을 안고 사적관을 나선 우리는 설매골의 양지바른 둔덕에 자리잡은 력사의 집뜨락에 들어섰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 집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에 그리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다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시된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가운데방에는 그이께서 학습하실 때에 리용하신 책상과 학용품, 락상시계 등이 전시되여있었고 그 옆방에는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시던 흑판이 걸려져있었다. 뜻깊은 사적물들마다에는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전해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새겨져있었다.

우리는 이 력사의 집옆에 푸르러 설레이는 두그루의 잣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당창건 5돐이 되는 뜻깊은 날 어린 동생과 함께 두그루의 잣나무를 정성껏 심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잊지 못할 그날 미국놈들이 한그루의 나무를 불태우면 우리는 열그루, 백그루의 나무를 심어 우리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 나무가 푸르싱싱 자랄때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될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숭고한 뜻을 전하며 사계절 푸르러 설레이는 잣나무들이였다.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학습터와 샘물터, 물고기 놓아주신 곳, 노래보급터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동무들에게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배워주시면서 우리모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군님의 아들딸로 준비하자고 하시며 선창을 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정의 세계가 노래보급터에도 깃들어있다는 강사의 이야기는 어버이수령님께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이 과연 어디에 그 열원을 두고있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주고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손수 지어주신 《장군복》을 입으시고 우리도 인민군대처럼 미국놈들을 때려부시러 가자고 웨치시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군사놀이터에 이어 씨름터와 사격련습터에서 우리는 그때에 벌써 선군령장으로서의 뛰여난 자질을 한몸에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더욱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서 커서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되새겨보신 사적이 깃들어있는 장수봉회상터를 지나 우리는 자신께서 손수 따신 산열매를 마을로인에게 권하시며 거칠고 터진 그의 손에 약까지 발라드리신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는 덕성터에 이르렀다.

력사의 그날처럼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장정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우리는 장자봉마루의 정각에 올랐다.

정각에 올라서니 전화의 나날 바로 이곳에서 이 나라의 천만산악을 굽어보시며 자신께서는 장군님을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싸우는 주인이 되겠다고 격정을 터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맹세가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았다.

정각을 내리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맹세가 어린 그 메아리에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의지가 높뛰고있는것이 아닌가.

장자산혁명사적지를 돌아보고 귀로에 오른 우리의 눈앞에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는 가로수너머로 장자산소년단야영소의 눈부신 창가들이 정겹게 안겨들었다.

순간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녕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꽉 차넘치기에 그이께서는 오늘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것 아니랴. 바로 그 길우에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장자강반에 희한한 선경이 펼쳐졌으며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폭포와 더불어 인민의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것이다.

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축도인양 장자강반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심장으로 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은 우리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라고.

김 명 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4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수리아인민의 영원한 지도자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의 령도밑에 수행된 시정운동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나는 수리아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아랍사회부흥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11월 15일 평 양

값높은 평가, 크나큰 고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인민군대와 사회의 수많은 예술공연을 보아주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여기에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종업원들이 준비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그이를 모신 영광을 안고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혁명의 선봉부대로 떳떳이 살며 투쟁하는 자기들의 끝없는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만난을 뚫고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제대군인부부가 부르는 2중창 《장군님 따르는 마음》, 《우리는 로동자부부》, 녀성독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녀성5중창 《철령아리랑》, 북과 노래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합창시 《위대한 장군님따라 어버이수령님 혁명유산 더욱 빛내여나가자》, 취주악과 노래 《승리의 5월》,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2중창을 부른 제대군인부부가 노래를 구수하게 잘 불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경력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예술소조공연같은데는 그런 종목들을 내놓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것이 예술창조라고 할수 있다고, 취주악과 노래 《승리의 5월》을 힘있고 기백있게 잘 한다고, 기존방식과 도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공연이 끝난 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공연을 아주 잘하였다고, 모든 공연종목들을 로동계급의 맛이 나게 잘하였고 문화성도 있고 정서도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지금까지 예술소조공연을 여러번 보았는데 이곳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이 제일 잘된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생동하고 힘있는 공연은 전문예술단체 예술인들도 하기 힘들것이라고, 생활은 책상우에나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속에 있고 현실속에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속에서 창조되는 예술만이 진정한 인민의 예술이며 선군시대의 본보기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흥남로동계급속에서 활짝 꽃펴나고있는 군중예술이야말로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입니다. …

흥남의 로동계급처럼 예술을 창조하며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온 나라의 군중문화예술발전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강령적지침이였다.

본사기자 김 성 남

당의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되는 선군혁명의 주체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선군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은 그것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수행되고 전진한다. 강력한 주체를 가진 혁명은 필승불패하지만 그렇지 못한 혁명은 우여곡절을 겪는 법이다. 혁명의 위력이자 주체의 위력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정치적향도자이다.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에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오직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과정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과정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대중을 어떻게 묶어세우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혁명대오를 이루는 사회적집단가운데서 어느 집단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가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시대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선군시대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고 사상과 정신, 투쟁기풍의 모든 면에서 인민군대가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모범을 혁명대오전체가 따라배우게 한 우리 당의 령도는 선군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인민군대가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군민일치가 확고히 보장되게 됨으로써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최상의 경지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군대를 단순히 정치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혁명을 앞장에서 선도하는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사상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한 바로 여기에 선군시대 주체강화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으며 이것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를수록 혁명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천만군민이 수령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사상적순결체를 이루게 한 근본원천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사상의 위력이다.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은 혁명사상의 유일성과 순결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뭉친 혁명대오가 발휘하는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선군정치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준비시키는것을 혁명대오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운것이 우리 당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의 원리는 선군혁명의 주체강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있다.

오늘 우리 선군혁명대오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꽉 들어찬 불패의 대오로 자랑떨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직 선군의 길만이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당의 사상과 로선을 생명선으로 삼고 투쟁하는 과정에 선군조선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창조되고있는 모든 기적과 위훈의 바탕에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강의한 정신력이 놓여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대계도간석지건설과 같은 불멸의 기적을 창조한것은 선군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조선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창조되는 대비약속도는 사상의 위력,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정체이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상사업을 앞세우며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꾸려나가는 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정예화, 강군화를 실현할수 있게 한 기본담보이다.

단결의 공고성과 전투적위력은 그 핵심대오의 위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혁명의 주력군이 온 사회가 따라배워야 할 불굴의 혁명정신을 창조하고 혁명대오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혁명이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선군시대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정립한데 기초하여 혁명군대를 주체강화의 본보기로 내세워왔다. 제국주의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혁명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의 시대에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여기에 선군혁명의 주체강화에서 쌓은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언제나 군대를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으시였으며 그를 본보기로 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여오시였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인민군군인들의 생활기풍, 투쟁기풍을 본받아 온 사회에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풍이 차넘치게 하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력량으로, 혁명대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강력한 주체를 마련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동당시대를 상징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정예화, 강군화를 실현할 때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군대가 온 사회에 진할줄 모르는 혁명정신을 뿜어주고 전체 인민이 군대의 모범을 본받아 투쟁하는 과정에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는 사랑과 믿음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동지적관계로 결합시키는 근본담보이다.

혁명의 주체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당과 령도자의 두리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결속될 때 비할바없이 강화된다.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미풍, 동지를 위하여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령도자의 사상과 뜻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생명체, 바로 이것이 혁명의 주체이다.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만들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도덕의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단결되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의 주체강화의 기본사상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우리 당은 병사들과 인민들을 믿고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은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일관되고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를 낳는 강행군길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동지적관계로 굳게 결합되여있다. 자기보다 먼저 집단을 생각하고 동지를 위하는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는 전체 인민이 참다운 동지적관계에 기초하여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우리 사회에서만 꽃펴날수 있는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력한 선군혁명의 주체를 가지고있는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김 은 주

주체미술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만수대창작사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윤산군 부흥리당위원회에서 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활발히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은 일군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실천으로 빛내일 맹세안고 맡은 일에서 애국의 열정을 적극 발휘하게 하고있다.

얼마전 한 일군은 농장원들앞에서 농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면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영광의 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보란듯이 꾸려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장원들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발자취가 새겨진 농장마을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전변시켜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김 철 혁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더욱 훌륭히 꾸려지는 대규모과일생산기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장에서

만년대계의 창조물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건설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서고있는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날마다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번 하자고 결심한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지난 8월초, 비속을 뚫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골재원천을 찾기 위해 떠난 조선인민내무군 윤경포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고 며칠만에 기초굴착작업을 끝냈지만 먼곳에서 골재를 수송하다나니 공사속도를 더 높일수 없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의 배심은 든든하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돌격전을 벌린 나날들이 뜨겁게 안겨왔다.

…몇시간째 토론이 계속되고 있었다.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회였다. 짧은 기간에 기초콩크리트치기, 골조공사를 끝내야 하는 문제가 론의되였다.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자면 뭐니뭐니 해도 골재수송속도를 종전보다 더 높여야 하였다. 한다하는 운전사들도 장마철조건에서는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협의회분위기는 긴장되였다.

무거운 침묵을 깨치며 황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골재운반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기어이 가까운 곳에서 골재원천을 찾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길을 떠난 군인건설자들이였다. 그들은 기초콩크리트치기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골재원천을 찾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대동강기슭을 따라 수십리길을 오르내리며 땅을 파헤치는 이들의 옷은 비에 푹 젖었고 발은 부르텄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공사를 맡은 책임감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분발하게 하였던것이다. 며칠동안의 전투끝에 골재원천을 찾아냈을 때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는 이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조국이 승리의 소식을 기다린다. 시간을 주름잡아 달리자.

이것이 골재수송전투에 달라붙은 군인건설자들의 하나와 같은 심장의 웨침이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종전의 관념을 깨뜨리고 골재수송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것은 아니였다. 그칠줄 모르고 계속 내리는 비로 하여 도로의 일부 구간이 파괴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에서 난관이 조성되였다. 군인건설자들속에서 도로를 보수할것이 아니라 새로 건설하자는 대담한 안이 나왔다.

도로건설을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십리구간에서 굴착과 성토작업이 추진되고 막돌을 채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투장이 들끓었다. 웃옷을 벗어제낀 군인건설자들이 한쪽에서는 막돌을 펴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반다짐작업을 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러던 어느날 도로공사장에 뜻하지 않게 암반이 나타났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난관을 맞받아나갑시다.》

지휘관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주춤했던 대오가 다시 기세를 돋구기 시작하였다. 지난 기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이였다.

그들은 질쩍질쩍한 감탕을 퍼내고 로반을 닦기 위한 작업을 전투적으로 다그쳤다. 며칠간에 걸치는 치렬한 전투끝에 도로는 그 어떤 륜전기재가 달려도 끄떡없게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수송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건축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높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거듭하였다. 기중기차를 비롯한 골조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군인건설자들속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방안들이 나왔다. 자체의 힘으로 골조공사에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 리용하자는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것은 콩크리트혼합물을 일정한 높이까지 올리는 설비였다. 림용일소속 구분대지휘관들이 창안한 이 설비를 리용하면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이고 로력을 절약할수 있었다. 공사장에 설비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렵다고 하던 골조공사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이야기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많은 블로크를 찍어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긴 군인건설자들, 앞선 공법을 받아들여 지붕트라스조립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한 김성곤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축공사는 성과적으로 결속될수 있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만년대계의 창조물건설에서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창조적열정에 의하여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은 가까운 앞날에 훌륭히 일떠서게 될것이다.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618건설돌격대 성, 중앙기관사단 돌격대원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일떠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수백동의 살림집들이 건설되고있다. 종합농장의 풍치에 어울리게 조선식합각지붕을 씌운 살림집들이 솟아나고있는 광경앞에서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어느모로 보나 손색없이 건설되고있는 살림집들은 618건설돌격대 성, 중앙기관사단 돌격대원들의 이악하고 깐진 일솜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이 크게 궁리하고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제기된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종합농장의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시작부터 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었다. 과제는 방대하고 조건은 불리하였지만 사단에서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대담한 작전을 펼치였다.

시공을 맡은 일군들은 모든 작업공정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앞선 시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부쩍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살림집건설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사단의 돌격대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재정성중대의 돌격대원들이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이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준비를 잘하고 건설속도를 부단히 높이였다.

지난 9월 층막공사를 할 때였다. 콩크리트치기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골재와 혼합물보장사업을 따라세워야 하였다. 하지만 며칠째 내리는 무더기비로 하여 골재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할것인가.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있을 때 중대장이 대오앞에 나섰다.

—난관은 일시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살림집건설을 기한전에 끝내야 한다.

높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말은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끝끝내 채취장을 찾아내여 골재를 해결하고 건설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조선혁명박물관, 국가과학원, 상업성, 농업성중대의 돌격대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물리치면서 맡겨진 살림집건설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었다.

사단에서는 모든 륜전기재들을 동원하여 건설자재들을 집중적으로 수송함으로써 살림집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살림집건설에서 물동수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사단의 운전사들은 자동차들의 수리점검을 제때에 하고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 물동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간석지건설지도국, 문학예술출판사, 내각사무국중대들의 자동차운전사들은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려 많은 물동을 수송함으로써 건설에서 큰 몫을 해제꼈다.

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하루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살림집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건설의 나날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의 감동깊은 투쟁이야기는 선군시대의 창조물들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공격전의 불바람 인다

조선인민군 방일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현지보도

여기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달려나온 조선인민군 방일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불도젤들의 동음 높이 울리며 충천한 기세로 과수발정리를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더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붓기는 붉은 기발, 운전대를 틀어쥐고 불도젤을 몰아가는 운전수들, 이마의 땀도 훔칠새없이 뛰여다니며 과수발정리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들…

과수발정리전투장 그 어디나 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친다. 종합농장을 빠른 시일안에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자가 될 기상안고 불도젤들을 몰아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중에서도 운전대를 틀어쥐고 불도젤을 힘차게 몰아가는 《301》호운전수의 붉게 상기된 얼굴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저 동무가 바로 공사장에 달려온 그날부터 매일 과제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오길선동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동행하던 지휘관이 자랑담아 하는 말이다.

알고보니 그는 과수발정리전투에서 언제나 앞장서 달리는 미더운 혁신자이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고마움을 소리높이 노래하는듯 더욱 세차게 울리는 발동소리, 발동소리…

어느새 한 구역을 다 정리한 불도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그뒤로 측량원들이 방금 정리한 과수밭의 수평도를 알아본다. 측량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어린다.

《우리 동무가 바로 공사장에 앞서거니뒤서거니 승벽내기로 흙을 밀어낸다.

나라의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공급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장은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다.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불타는 열정을 보여주듯 불도젤들의 동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게 울려퍼진다.

함께 책임진 립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요즘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공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지원사업을 성의있게 하고있다.

상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가지고 현장에 나가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공사장을 찾은 수매량정성의 일군들은 여러가지 물자와 생활필수품들을 돌격대원들에게 넘겨주면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벌려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화학공업성의 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여러가지 후방물자들을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밖에도 금강지도국, 대성지도국, 은하지도국, 봉화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종합농장의 살림집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외국문출판사의 일군들은 공사장에 찾아가 돌격대원들이 인민군군인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워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각 도인민보안국들에서도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전국각지 근로자들의 성의에 고무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맡겨진 과제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킬 결의안고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영예의 혁신자들

618건설돌격대 성, 중앙기관사단 재정성중대 중대장 **유철동무**를 두고 돌격대원들은 《우리 중대장》이라고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그는 언제나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설 때마다 실천적인 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 매일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맡겨진 살림집건설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조선인민군 방일호소속부대 **함만식동무**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를 위한 과수발정리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열정안고 과수발정리전투장으로 달려나온 그는 불도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매일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함경북도인민보안국대대 **강창혁동무**는 현대적인 돼지공장건설장에서 미장명수로 불리우고있다. 미장칼을 한번 놀릴 때마다 벽면이 나무랄데없이 미끈해지는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그는 오늘도 돼지공장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릴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마감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유철동무

함만식동무

강창혁동무

한 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진정

박천군 삼봉리당위원회 일군들

박천군 삼봉리당위원회 일군들은 친혈육의 정을 안고 특류영예군인인 김정호동무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특류영예군인의 가정에 자주 들려보면서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는것을 자기들이 응당 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있다.

김정남동무가 이 농장에서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였다. 리당위원회 일군들이 자주 찾는다는 특류영예군인의 집부터 찾아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알아본 그는 그날 저녁 리당비서 조명환동무와 마주앉았다. 그들은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을 자신들의 도덕적의무로 여기고 김정호동무의 가정을 따뜻이 보살펴주자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후 두 일군의 발걸음은 특류영예군인의 집으로 더 자주 향하군 하였다.

새해 첫날이면 리당비서는 특류영예군인의 집부터 찾군 하였다. 어느해 설날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과 기념품들을 내놓는 리당비서에게 특류영예군인과 그의 안해는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나 리당비서는 마음이 무거웠다. 방의 아래목은 따뜻하였지만 웃목은 그렇지 못했다. 불이 잘 들지 않는것이 분명했다. 자주 찾아와 돌봐준다고 하지만 아직 자기들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리당비서는 그후 인차 대책을 세워 살림방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지난해 여름 억수로 쏟아진 무더기비로 하여 김정호동무의 집 담장이 무너졌을 때였다.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것을 발견한 관리위원장은 인차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농장원들과 함께 담장을 잘 보수해주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관리위원장은 농장원들과 함께 창고도 번듯하게 다시 지어주었다.

올해 봄 특류영예군인 김정호동무가 두달나마 군인민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었다.

이때에도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은 한주일이 멀다 하게 병원에 별식과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가 특류영예군인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도록 고무해주었다. 그들만이 아니라 리당과 관리위원회의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작업반초급일군들까지 특류영예군인의 병치료를 위해 정성을 다 바치였다. 그리하여 특류영예군인은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되였다.

특류영예군인 김정호동무와 그의 안해 김현희동무는 자기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리당과 관리위원회의 일군들, 농장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극진한 사랑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언제나 희열과 랑만에 넘쳐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고있다.

한영식

기술혁명수행의 앞장에 선 3대혁명전위들

현실에서 쌓아가는 높은 실력

남포의료기구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높은 실력의 소유자가 되자.

이것은 남포의료기구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의 불같은 지향이며 실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혁명투쟁은 실력전이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높은 실력으로 주사기생산공정에서 걸리고있는 어려운 기술혁신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소조책임자 안철운, 소조원 황성권, 최유현, 김은경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이 맡아 수행한 기술혁신성과들은 실리가 큰것으로 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성과에는 비결이 있기마련이다.

《학력이 곧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만난 기사장 박기준동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소조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 파견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포부도 크고 꿈도 많은 청년들이였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생산현장을 돌아보던 기사장은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기술과의 한 일군과 소조원이 어떤 기술적문제를 놓고 론쟁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소조원은 기술일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것이였다.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였다. 그날 저녁 기사장은 소조원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았다.

《동무들이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실천투쟁속에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갈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부단히 배우고 탐구할 때 다재다능한 실력가들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기사장의 말이 소조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였다.

그때로부터 소조에서는 실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별들도 조는 깊은 밤에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보풀이 일도록 참고서와 문헌자료들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현장기술자들속에 들어가 허심하게 배웠다. 이 과정에 소조원들의 실력은 더욱 풍부화되고 공고화되였다.

공장에서는 주사기내두기대와 외두기대에서 제기된 기술적문제를 놓고 분분한 토론끝에 1년동안 완성할것을 목표로 하고있었다.

유리관등분절단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 주사기머리부분을 더욱 정밀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주사기공급통에서 제기된 문제 등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였기때문이였다.

바로 이 기술혁신안을 소조원들이 짧은 기간에 하겠다고 결의해나섰을 때 종업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적문제였기때문이다. 하지만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소조원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갔다.

소조원들의 실력이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소조원들은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기관들과 공장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수십차례의 실험을 거듭하면서 기술혁신과제를 빠른 기간에 완성하였다. 이 나날은 그대로 소조원들이 더 높은 실력을 쌓아가는 배움의 과정, 탐구의 과정이였다.

그들의 창조적사색과 열정에는 한계가 없었다.

소조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열식열발생장치를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완성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기사장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많은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렇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도 현실속에서 부단히 풍부히 해나갈 때보다 높은 실력의 경지에 올라설수 있다는것을 이곳 소조원들의 사업은 잘 말해주고있다.

황금철

실적의 기준

함흥철길대 3대혁명소조원들

함흥철길대 3대혁명소조원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

대중의 호평을 받는 기술혁신창안품이라야 그것이 소조원의 진짜실적이라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들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입니다.》

언제인가 3대혁명소조원들이 철길들개를 새롭게 설계하였을 때였다.

그것을 본 철길대 기공중대의 기능공들과 철길원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이런 기계는 다루기가 어렵고 대량생산도 힘들것 같다는것이였다.

소조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하다면 그것이 대중으로부터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튿날 소조원들은 철길소대들에 나갔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다. 철길원들과 함께 철길을 밟으면서 소조원들은 중요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일부 창안품들이 현실에서 은을 내지 못하고있거나 적극 활용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이였다.

그 원인을 철길원들이 설명해주었다.

철길원들의 말에 의하면 기술혁신으로 지난 기간에 마련된 어떤 기공구들은 다루기도 복잡하고 또 무거워 그것을 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는것이였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일부 창안품들이 현실에서 은을 내지 못하는것은 당연한것이 아닌가.

남궁일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교훈을 찾고 분발하였다.

철길대안의 철길상태와 곡선구간들을 빠짐없이 돌아보며 소조원들은 새형의 철길들개가 과연 어떻게 설계되여야 하겠는가에 대한 리해부터 바로가졌다.

—철길보수에도 편리하고 철길원들이 다루기도 쉬운 새형의 철길들개,

소조원들은 집체적힘과 지혜를 모아 새형의 철길들개에 대한 설계를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해내였으며 곧 제작에 들어갔다.

철길의 일상 유지관리를 위한 나사식방향정정기, 걸이력회전식철길들개, 철길의 세로방향밀림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

현장기능공들과 철길원들 누구나 좋아하는 이러한 기술적성과들이 바로 철길대당조직의 지도밑에 3대혁명전위들이 거둔 자랑찬 실적이다.

—소조원들스스로가 내세운 실적의 기준,

그것은 현실에서 쓸모있고 필요한 기술적문제들을 풀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에 새기고 가치있는 기술적성과로 대고조시대에 더 높은 실적을 쌓으려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깨끗한 량심의 기준이였다.

채인철

남다른 긍지를 안고

평양무궤도전차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에게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것은 평양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편리한 교통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일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안고 이곳 소조원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김명성, 김명운, 조금철동무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공장에서 제기되는 수지의자형타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비동기전동기를 전압과 주파수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최량화된 새형의 전동기로 개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음으로써 나라에 커다란 보탬을 주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소조원 백리향동무는 공장에 온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용접피복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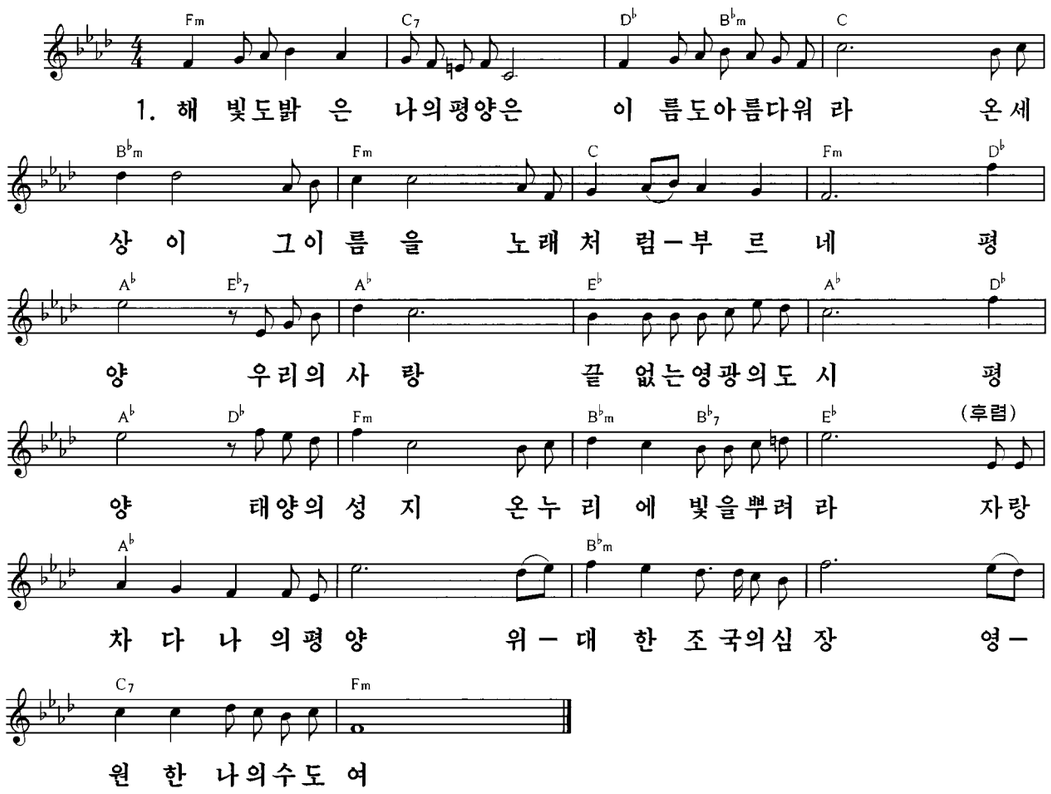
이러한 성과들은 백두산위인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이곳 소조원들이 지칠줄 모르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온 결과이다.

오철권

평 양

작사 차영도
작곡 황진영

환희에 넘쳐 (♩=130)



2. 그대가 새벽창문을 열면
새날은 눈부시여라
인민들의 모든 꿈이 이 거리에 꽃피네
평양 젊음이 넘친 희망찬 아침의 도시
평양 태양의 미소 하늘가득 어리여온다
(후렴)

3. 그대의 억센 신념과 같이
붉은기 날리는 평양
넓고넓은 광장에는 일심대오 끝없네
평양 민족의 기상 넘치는 불굴의 도시
평양 여기서 우리 세계향해 달려나간다
(후렴)

높은 의술로 주민들의 건강을

린산군 상하리인민병원 의료일군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린산군 상하리, 갖가지 약초, 약나무들로 숲을 이룬 이곳에 가면 남달리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의료일군들이 있다. 상하리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다.

도시병원 부럽지 않게 훌륭히 꾸려진 치료예방기지의 주인들이여서만이 아니다.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 지극한 정성은 주변군들에까지 소문이 퍼져 주민들의 발길이 그칠새없는 리인민병원이다.

하다면 이곳 의료일군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부문에서 중요한것은 의사들의 의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의사들의 의술이 높아야 제기되는 환자들을 제때에 더 잘 치료할수 있습니다.》

어느해 여름 해가 기울무렵이였다.

병원으로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곳 농장에 실습을 나왔던 어느 한 대학의 교원이 갑자기 앓는다는 련락이 왔다.

원장 리창환동무는 급히 어느 한 의사를 불러 구급왕진을 조직하였다.

시간이 좀 걸려서야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몇가지 특징적인 림상소견들로 미루어보아 무슨 병으로 진단, 대책하였다며 왕진결과를 보고하였다.

왕진의사로부터 환자의 병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청취하면서 원장은 질병감별에 필요한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의 마지막대답은 시원치 않았다.

감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증상을 소홀히 여긴것이 분명하였다.

원장은 립회왕진을 결심하였다. 결과 환자의 병은 정확히 진단되고 치료되였다.

이 일을 교훈으로 하여 병원에서는 협의체계를 엄격히 세웠으며 자질향상의 도수를 높이였다.

병원안에서의 치료활동과정에서는 제기될것이 없었으나 개별적으로 담당구역에 나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하루사업을 총화하는 저녁시간에 왕진으로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시간에 반드시 의사협의회를 진행하고 그 결론에 따라 치료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왕진정형을 놓고 진행하는 의사협의회과정이 시사적이다.

처음에는 탐구심이 있고 독학가로 소문난 신광철의사에게 진찰과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여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다음 매 의사가 다 자기 견해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이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계기로 되게 하였다. 병원에서는 점차 협의회수준을 높이도록 요구하였다. 재왕진, 재학습과정을 통하여 제때에 부족점을 찾았다.

날이 갈수록 협의회를 통하여 얻는 소득은 컸다. 이제는 누구나 기다려지는 협의회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이와 함께 한달에 한번씩 자기들이 진단한 환자를 데리고 상급병원에 나가 다시금 협의진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료일군들이 자기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질향상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문답의 방법으로 지식의 폭을 부단히 넓혀나가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치료수기들에 정통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병원집단의 실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좋았다.

얼마전에 군에서 진행한 의료일군들의 실력판정에서는 리윤희, 신광철, 김영란동무들을 비롯하여 이곳 리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다지고다져가는 의술로 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책임적으로 벌려가고 있다.

복잡한 림상증상들이 나타나는 어느 한 주민에 대한 병진단을 정확히 하여 치료를 제때에 하고 건강을 회복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이곳 의료일군들이 높은 의술로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사실들은 많다.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보답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이런 의료일군들을 주민들은 신뢰하고 존경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제11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전시회 진행

제11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전시회가 8일부터 15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최첨단과학기술성과로 담보해갈 전국의 교육부문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청년들의 드높은 창조적열의속에 열린 전시회는 나라의 정보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전시회에는 모의실험실습, 원격교육프로그람과 다매체편집물들을 비롯하여 기술인재양성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할 900여건의 가치있는 프로그람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희천공업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15일에 있은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된 다음 표창과 시상이 있었다.

전시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교육사업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교원, 연구사들과 첨단과학의 개척자로 자라나는 학생청년들의 실력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국가과학원에서

탐구의 길에 바쳐가는 순결한 마음

기계공학연구소 과학자들

탐구의 길은 멀고 험하다. 한생을 바칠수도 있고 지어 그 한생이 모자랄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과학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순탄하지 않은 탐구의 길을 웃으며 걷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동해지구의 어느 한 제련소에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판앞에는 한사람이 오래도록 서있었다. 고향에 왔다가 이곳에 들린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 리상남동무였다.

그가 벌써 몇번째로 읽어보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십년전 이 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질합금을 성형하는 작업을 기계화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아직 손로동을 피하지 못하고있다고, 더 연구하여 이 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하여야 로력을 절약할수 있고 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하신 현지교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간곡하게 강조하신 이 문제가 바로 당시 리상남동무가 전문하던 압착가공분야의 연구대상이였던것이다.

유년시절의 추억이 깃든 고향땅의 제련소에서 뜻밖에도 압착가공연구사인 자기에게 주신것만 같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는 저으기 흥분되였다.

그의 과학적량심은 이미 가야 할 탐구의 길을 뚜렷이 가리키고있었다. 그는 지체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사람들은 그전에 비하여 퍽 개선되였다고 말하였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걸리는것이 많았다.

그는 제련소일군들을 찾아갔다. 불현듯 나타난 과학자가 자기들이 제일 고심하던 문제를 제기하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과학자의 진정을 알게 된 그들은 너무나 반갑고 고마와 수십년간에 걸쳐 얻은 귀중한 기술개건경험과 자료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는 연구소에 돌아오자마자 대담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소일군들과 압착가공연구집단의 일치한 찬동속에 연구력량이 무어졌다. 그들은 인민대학습당과 발명총국을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면서 경질합금을 성형하는 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할수 있는 분말성형프레스에 대한 문헌조사도 진행하고 여러 단위들의 현장실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대담하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분말성형프레스를 개발할 연구목표를 내세웠다.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스스로 택한 이 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릴 불같은 마음이 마를줄 모르는 지혜와 열정의 원천으로 되였다.

마침내 김진착, 리상남동무들은 원료분말공급으로부터 성형, 퇴출, 형타에서 집어내는 모든 작업공정을 순차적으로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분말성형자동프레스구조를 착상하였다. 한동림동무는 콤퓨터모의실험으로 독특한 방식의 이 프레스구조를 과학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1년만에 분말성형자동프레스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였다.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의 투쟁에 의하여 과학자들의 설계는 실물로 하나하나 실현되여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더 다그쳤더라면 하는 가슴아픈 자책감과 아쉬움이 갈마들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릴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프레스제작에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바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려는 과학자들과 현장로동계급의 순결한 량심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분말성형자동프레스는 드디여 단번성공으로 훌륭히 개발제작되였다.

올해초 또다시 제련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들과 함께 분말성형자동프레스를 만들었으면 좋다고 하시면서 기술개건사업을 강력히 내밀어 작업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성능이 높은 프레스를 제작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나 그 시각 영광의 자리에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없었다. 대고조전투가 벌어지는 전투장들마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못 잊을 그날 축하와 함께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멀리에서 전화를 걸어온 제련소의 한 일군에게 리상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면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우리 프레스와 더불어 조국에 흔적을 남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는 한없는 그리움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흐르고있었다.

우리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택한 탐구의 길에서 바란 최대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였다.

이 땅의 과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이 길을 걷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우리 장군님께 대를 이어 바쳐가며 순결한 량심으로 탐구의 길을 걷는 이런 과학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기에 이 땅우에는 멀지 않아 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우뚝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에서 봉사 시작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인민의 봉사전당 옥류관에 또 하나의 희한한 현실이 펼쳐져 수도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있다.

우리 당의 한없는 은정속에 훌륭하게 일떠선 료리전문식당에서 15일 첫 봉사의 문을 열었다.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료리전문식당건설을 발기하시고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새로 건설된 식당을 찾으시여서는 봉사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을 꽃피우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수도시민들에게 민족료리와 함께 세계적으로 이름난 료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료리사들은 기술전습과 품평회, 시식회를 통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료리방법들을 완성하였으며 명료리들의 진미를 살리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이날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은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가는 긍지속에 이곳을 찾은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로 흥성이였다.

식사실들에서는 신선로, 약밥, 평양랭면, 녹두지짐을 비롯하여 특색있는 민족음식들, 자라, 철갑상어, 메추리료리 등 진귀한 료리들, 여러가지 세계명료리들과 함께 각종 음료가 손님들에게 봉사되였다.

황홀하게 꾸려진 최상급의 식당에서 천하진미를 자랑하는 갖가지 료리들로 풍성한 식탁을 마주한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복이 넘치는 료리전문식당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음식문화를 향유할수 있도록 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다그쳐 온 나라에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운 영웅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스스로 일감을 찾아

경공업과학분원 발효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힘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지난 어느날 경공업과학분원 발효연구소 장공학연구집단의 연구사들이 라선기초식품공장에 내려갔을 때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이들을 무척 기다린듯 반기는 기색이였다. 그도그럴것이 공장에서는 절약이자 증산이라는 관점에서 간장생산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애쓰고있었던것이다.

연구사들이 내려온것 역시 이 문제를 풀자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공장의 장생산공정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잘 도와준 이들은 원가를 낮추면서 간장생산을 정상화할 결심밑에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우연한 일치가 아니였다.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연구사들과 생산자들의 생각이 한곬으로 흘렀기때문이였다.

간장생산공정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돌아본 실장 박경철, 연구사 리금주동무는 원가를 낮추면서 간장의 질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

공장에서 열린 기술협의회에 참가한 장공학연구집단의 연구사들은 려과방법을 개선하여 간장의 질을 더 높이며 종전에 비해 농도가 낮은 염산용액을 리용하여 원가를 줄일것을 주장하였다.

공장에서는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로력을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끌어올리게 되였으며 농도가 낮은 염산용액을 쓰면서도 생산효과를 높이고 원가를 줄이게 되였다.

실장 김수국, 연구사 방은정동무들은 삼지연장공장에 나가 된장과 간장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들은 새로 연구한 미생물로 종곡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종전보다 곡자의 효소력을 훨씬 높이였고 고온저염적치분해와 소금물되돌이를 진행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제품의 질을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또한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안고 공장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저염간장생산방법도 세워놓았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의 현대화사업에 적극 기여한 연구사들도 참으로 미덥고 돋보인다. 빵효모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자료를 제때에 보장한 연구사 한계환동무, 연구와 도입에서 걸린 고리를 해결해준 실장 맹영진동무, 공장에 나와 연구사들과 함께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일군인 김동립동무…

스스로 일감을 찾는 혁신적인 일본새에는 과학기술로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추동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투쟁기풍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오철훈

CNC화를 적극 실현

중앙실험분석소에서

중앙실험분석소의 과학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 나가 분석설비들을 CNC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현장들에서 분석은 원료나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의 조성을 밝혀내고 평가하는 조작으로서 생산공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중앙실험분석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학자들이 현장들에 나가 분석공정의 CNC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고있다.

이에 따라 분석기구현대화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콤퓨터에 의한 탄소류황고속분석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최근에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과학자들이 새로 개발한 분석지원체계는 금속이나 비금속물질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류황을 신속정확히 분석하여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관리를 과학화, 정보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실리있는 기술이다.

특히 철광산들에서 광석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제철, 제강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강철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실장 박성호, 연구사들인 김성민, 박철진동무를 비롯한 분석기구현대화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여러 단위들의 현 실태와 종전의 탄소류황분석설비들의 제한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우리 식의 분석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분석오차를 훨씬 줄일수 있는 결합장치와 프로그람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분석지원체계를 도입한 여러 단위들의 경험에 의하면 종전에 비하여 측정범위는 크게 늘어나고 측정정밀도가 훨씬 높아졌으며 측정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분석에 들던 자재와 전력, 로력이 크게 줄어들고 작업조건이 훨씬 개선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브라질특명전권대사 공화국선포의 날에 즈음하여 연회마련

공화국선포의 날에 즈음하여 아르날두 까릴유 주조 브라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의춘외무상,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오룡철 무역성 부상, 문재철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브라질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씰바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브라질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2차회의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출발

중국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2차회의에 참가할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1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김룡수 전력공업성 부상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 부위원장일행 도착

토마스 루체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 부위원장과 일행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미국대조선정책전문가대표단 도착

쎈츄리기금 상급연구사 모튼 아브라모위쯔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조선정책전문가대표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의 구성을 우러러따르는 마음

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대학 교연구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적이 있었다.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갈라진 우리 민족을 통일할수 있는 지도력과 인품을 지닌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조국을 통일하실 희망의 령도자는 김정일장군님이시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온 인류가 칭송하는 절세의 위인이실뿐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최우선과제로 제기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기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을 통일하실 위대한 령도자로 굳게 믿고 따르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뜨거운 경모심과 확신에 찬 대답에서 우리는 남녘민심의 동향을 그대로 느낄수 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운명의 구원자로,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칭송하면서 그이를 경모하는 민심이 끝없이 분출되고있다.

어느해인가 수원에서 해바라기회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민족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들이 있었다.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실분은 오로지 단군민족이 낳은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이시다.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통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갈수록 굳세여지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따라야 통일이 되고 민족의 밝은 앞길이 열린다.》

다른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시며 넓으신 포옹력과 은정깊은 사랑으로 우리 겨레 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의 걸출한 령수,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그이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를 때 조국통일이 빨리 오고 모두가 잘사는 민주사회도 빨리 온다.》

이날 회원들모두는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천세만세 모시고 따르는 해바라기가 될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언제인가 광주의 한 재야인사는 동료들에게 《조국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스스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력사는 우리 민중에게 자주만이 민족의 살길이며 외세의 존은 민족공멸의 길임을 립증해주었다. 이제 통일문제를 놓고 고민할것은 무엇이며 또 주저할것은 무엇이겠는가.

공동선언에 명시된 자주정신을 따르고 김정일장군님의 자주정치를 받들면 통일은 분명 밝아오는 아침처럼 우리에게 다가올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은 이처럼 뜨겁고 절절하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로 하여 부모형제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친척친우들이 서로 생사를 몰라 고통속에 모대긴 나날들은 그 얼마인가.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창밖에 비뿌려도 남녘겨레들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고 좋은것이 하나 생겨도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여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그 드팀없는 통일의지,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자주통일의 불멸의 리정표가 마련될수 있었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6.15통일시대가 열릴수 있은것이다. 바로 그래서 남녘겨레들이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끝없이 경모하면서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실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는 남녘인민들의 확신은 언제인가 서울의 대학생들이 산골에서 살아가는 한 로인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런 산골에서 무엇을 믿고 사는가?》라고 묻는 학생들에게 로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위인은 세계가 높이 우러러받드는 민족의 위대한 령수이신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분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다. 이런 위인을 민족의 령수로 모신 우리 민중은 행운중의 행운을 타고났다.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북녘을 향해 그분을 우러른다. 그러면 울적하던 마음은 눈석이처럼 사라지고 늙은 몸이지만 용기가 되살아난다. 우리 민족이 김정일장군님의 치하에서 만복을 누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믿고 나는 이 산골에서 꿋꿋이 살아가고있다.》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남녘겨레의 긍지와 자부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의 반영이다.

하기에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기자는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지금 이남의 뜻있는 사람들은 몸은 비록 남에 있어도 마음만은 북에 두고 산다.

북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서로 주고받는 말들에도 김정일령도자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떠받들고 우러러모실 의지가 어려있다. 이남민중의 가슴속에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우리 나라는 번영할것이라는 신념이 자리잡고있기에 그들은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눈빛을 흐리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것이다.》

자주통일위업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은인으로 칭송하는 이런 목소리는 남녘의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의 대해같은 사랑의 품이 그립다.》

《우리도 하루빨리 태양의 품에 안겨살아야 한다.》

《김정일령도자님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겨레의 운명이시다. 어서 가자 김정일령도자님의 품으로!》

《어버이 김정일령도자님의 품이야말로 이남민중모두가 안겨살 태양의 품이다.》

《김정일장군님을 령수로 모신것은 민족의 한없는 긍지이다.》

…

정녕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받들 때 이 땅우에 통일강국이 반드시 일떠선다는것이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진리이다.

본사기자 복은희

애국애족적인 통일관

주체74(1985)년 5월 어느날이였다.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한 국가수반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담화석상에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통일문제에 대한 소감과 그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이 질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숙망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분렬로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자신의 고통과 불행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적인 통일관에 그는 크게 탄복하였다.

불변의 신념

주체71(1982)년 9월 9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고,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삼천리금수강산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지 두개의 조선은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조선민족은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은 하나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모든것을 조국통일을 위하여

주체74(1985)년 9월 22일, 이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면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에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생의 고귀한 지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 40돐이 되는 주체74(1985)년 8월 15일 일군들에게 애국자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애국은 결코 우국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진정 애국에 살려는 우리 겨레모두가 가슴속깊이 간직하여야 할 생의 고귀한 지침이였다.

본사기자

방글라데슈단체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규탄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규탄하여 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북침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전쟁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킨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모략적인 이 사건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어이 련계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날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이 진상공개장(1)에 명백히 밝힌것처럼 《천안》호침몰사건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흉악한 정치, 군사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특대형모략극, 날조극이다.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에로 몰아가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위험만이 나날이 커가고있으며 불신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 ⁘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1)을 지지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억지로 련계시키면서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조선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조선전지역에서 북침전쟁연습들을 벌려놓았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사건현장에서 수거했다는 모든 물증들을 판문점에 내다놓고 공동으로 조사평가하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의 아량있는 제안까지 거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건조사결과에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사건재조사를 주장해나서고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천안》호침몰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1)이 밝힌것처럼 철저히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에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날조극, 모략극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량있는 제안에 성실하게 호응해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1)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대결광증이 낳은 어처구니없는 행위

지금 남조선에서 《천안》호사건을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악용하는 군부세력의 망동이 계속되여 내외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폭로된것처럼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상전과 작당하여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해냈다.

결과 숱한 사병들이 동족대결소동의 제물로 바쳐졌고 가뜩이나 악화된 북남관계가 더욱 헤여나기 어려운 파국의 수렁속에 빠졌다.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남조선군부세력이 《천안》호사건을 둘러싼 무모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걷어치워야 할 때이다. 그런데 남조선군부세력은 과연 어떻게 처신하고있는가.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천안》호사건으로 생죽음을 당한 46명의 사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이들에 대한 훈장수여놀음이 또 하나의 반공화국광대놀음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한 신문도 죽은 사병들이 당국의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희생물일뿐 《공》을 세운것은 없는데 훈장을 수여하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평하였다. 남조선군부가 이런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천안》호사건을 걸고 우리를 기어코 모해하며 저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킬것을 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은 남조선군부가 그 무슨 《군의 사기》를 운운하며 《천안》호사건에 책임이 있는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린것이다. 이로써 함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면서 남조선사회에 동족대결분위기를 계속 고취하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흉심이 다시금 드러났다.

지금 북남대결에 환장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을 《북의 도발》에 의한것으로 여론을 계속 오도하며 그에 따른 《대응조치》라는 명목으로 각종 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그들이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얼마나 얼이 나갔는지 웃지 못할 희극까지 벌어졌다.

얼마전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은 조선동해의 저들수역에서 《북의 잠수정》으로 보이는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였다는 정보를 받게 되였다.

황황히 경계태세를 발령한 남조선군부는 그곳에 30여발의 폭뢰를 투하한다, 구축함과 초계함, 잠수함, 초계기 등을 급파한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말그대로 남조선군부전체가 쑤셔놓은 벌둥지처럼 되였다. 그런데 이후 폭뢰가 집중투하된 곳에 난데없는 10m길이의 통나무가 떠올랐다.

메사해진 남조선군부패들은 과거에도 바다물속에 잠겨있던 물체가 잠수정으로 오인된적이 있었다느니, 물에 불어난 통나무가 물속에 있다가 음파에 탐지됐을수도 있다느니 뭐니 하고 볼부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노루 제 방귀에 놀란다고 북침전쟁현훈증에 사로잡힌 남조선호전광들은 물속에 잠겨있는 통나무를 《북의 잠수정》이라고 고아대며 큰일이나 난듯이 복닥소동을 피운것이다.

이미 다 거덜이 난 《천안》호사건을 대결전쟁소동에 악용하면서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친미사대적망동을 비난

남조선의 《군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0일 반미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경찰당국의 친미사대적망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남조선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해고시킨 군산주둔 미군의 횡포한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려는것을 당국이 100여명의 경찰을 내몰아 가로막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격분한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그 리유를 따져묻자 경찰측이 《미군과 관련된것이기때문에 외교문제로 비화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반미감정의 확대를 가로막으려는 저들의 기도를 드러내보였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부끄러운줄 모르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남조선경찰이 미군을 위해 복무하고있음을 스스로 자백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인민들앞에서는 큰소리치면서도 미군앞에서는 비굴하게 자세를 낮추는 경찰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경찰당국이 이번의 행위에 대해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로조탄압책동중지를 요구

국제로동운동단체들과 남조선로조단체성원들이 11일 서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수당국의 로조탄압행위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의 현 《정부》가 업주들과 야합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로조활동을 마구 억누르고 비정규직로동자들의 로조가입과 단체협약체결을 가로막으며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의 인권과 로동운동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탄압은 하루빨리 중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세계 로조들은 폭력과 탄압을 끝장내기 위한 남조선로동운동단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로동기본권보장을 제한하는 법적장애물들을 철폐하고 구속된 로조활동가들을 석방하며 비정규직로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여러 나라들에서 국제로동운동단체성원들은 로조탄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남조선《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굴욕적인 협정체결책동을 반대하여 련대할것을 강조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서울 보신각앞에서 미국과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을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는 민주로총 부위원장 정희성, 진보련대 상임공동대표 리강실, 민주로동당 대표 리정희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최근 당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자동차시장을 개방하고 미친소고기를 끌어들이는 등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경제주권을 모두 미국상전에 내주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민생이 파탄되는것은 물론 후대들에게 빈곤만을 물려주게 될것이라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반대하고 평등과 참다운 생활을 바라는 마음들이 초불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을 반드시 저지시키기 위해 각계가 련대와 단결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인민들 《자유무역협정》체결 저지투쟁을 벌리는

호전광들 전쟁연습실시를 공표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15일 륙군제8보병사단이 경기도 양평군일대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11월말까지 계속되게 될 이번 군사연습기간 호전광들은 전차와 장갑차 등 전쟁장비들과 병력들을 동원시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벌리기로 하였다.

끊임없는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본 남녘의 민심

얼마전 남조선의 한 《국회》의원이 당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 당국이 이전 《정권》시기의 정책을 계속 이어야 한다고 대답하면서 북남대화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현 남조선당국의 대결일변도적인 《대북정책》을 반대배격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2000년과 2007년에 있은 북남수뇌상봉들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된것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사변이였다.

이 선언들은 북남관계에서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적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오랜 세월 분렬의 장벽에 막혀있던 하늘길, 땅길이 열리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래왕하는 감격과 환희의 시대가 펼쳐졌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통일애국운동에 떨쳐나서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평양과 금강산, 서울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활기있게 진행되여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개성공업지구건설을 비롯하여 민족경제협력의 동음도 힘차게 울려 평화번영의 밝은 래일을 기약하게 해주었다.

이처럼 활기에 넘치던 북남관계가 남조선의 현 당국이 출현하면서 삽시에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온 민족이 지지환영하는 북남선언들을 감히 헐뜯고 그 리행을 거부하면서 동족대결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그리하여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차넘치던 이 땅우에는 대결과 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되였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기에 북과 남이 협력하고 교류하며 혈연적뉴대를 다지던 지난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현 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남조선통일부에 대한 민심의 강한 분노도 나타났다. 통일부의 처사에 대해 응답자의 63.8%가 《잘못된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것은 그에 대한 표시이다.

남조선의 현 《정권》하에서 통일부가 《대결부》, 《반통일부》로 민심의 규탄을 받고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며 6.15통일시대의 소중한 성과들을 짓밟은것도 남조선통일부패들이고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실시하여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상태에로 돌려세운것도 그들이다. 통일부의 현인택일당이 그 무슨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며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지어 《급변사태》니 뭐니 하면서 《비상통치계획》과 같은 불순한 각본들을 만들어놓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은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북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반대하고있다. 이런 반통일대결집단을 남조선인민들이 곱게 볼리 만무한것이다.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야당의원은 《일보전진은커녕 후퇴만 하고있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며 민중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을 정당화하려고 날뛰여도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6.15의 정신은 말살할수 없다는것을 여론조사결과는 다시한번 증명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요구대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라설하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소동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우리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는 의연히 긴장한 정세가 감돌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화의 막뒤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때문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겨냥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운영전문가그룹에 정식 가입한것도 북남관계를 첨예한 국면에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이다.

우리 공화국을 주되는 과녁으로 삼고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은 이미 널리 폭로되였다. 그것은 그 무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을 해상으로부터 봉쇄하고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압살도구이다. 남조선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운영전문가그룹에 가입한것은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험한 기도의 발로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에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운영전문가그룹 가입놀음을 서슴없이 벌린것은 엄중한 반민족적인 도발행위이며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된다.

남조선외교통상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운영전문가그룹에 정식 가입한 후 앞으로 그와 관련한 저들의 《훈련참여와 활동이 크게 강화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광고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참가와 활동이 강화된다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과 긴장이 더욱 증대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 《북에 전쟁선포를 하는것과 같은 도발》이라고 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하다면 남조선보수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발광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그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의 개선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와 기어코 대결하려는 흉계를 품고있기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운영전문가그룹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가입놀음은 통일과 담을 쌓은자들의 뿌리깊은 대결야망의 뚜렷한 산물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조작한 후 남조선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할 때부터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세력은 그 요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보수패당은 저들의 기도가 분노한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현될수 없게 되자 속으로 이를 갈면서 그것을 실현할 기회만 엿보아왔다. 그러던 그들은 권력을 탈취하자마자 살 때를 만난듯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담하려는 흉심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2008년 2월 남조선당국은 이 기구에 대한 《참여방안검토》를 공언한데 이어 제주도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3국조정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그 무슨 《재난 및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미군과 일본《자위대》, 남조선군이 련합하여 각종 명목의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벌릴것을 획책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을 부활시키고 남조선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가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모의판이였다.

남조선당국은 그해 9월 그 무슨 《참관》을 구실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에 옵써버자격으로 참가하였는데 이것은 이 훈련에 전면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사전움직임이였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가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시도는 지난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2차핵시험을 코에 걸고 더욱 본격화되였다. 남조선당국이 지난해 5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참가를 공식 선언하자 보수세력들속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절차에 따라 참가했다.》느니, 《안참가하는것이 비정상적》이였다느니 하는 망발까지 튀여나온것은 그들이 이 범죄적인 침략기구에 가담하기 위해 얼마나 모지름을 써왔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류례없는 반공화국모략소동과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매달리고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부산앞바다에서 재침을 꿈꾸는 일본《자위대》무력까지 끌어들인 가운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을 주도하였다. 이 침략기구에 의존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책동은 실로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극도의 긴장이 조성되고있다.

지금 내외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일련의 북남대화도 진행되였다. 하지만 화약내를 풍기며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결광신자들의 책동을 그대로 둔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헤여날수 없고 나중에는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가담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위험한 도발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준

피고석에 오른 《인권재판관》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던 미국이 최근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장에서 피고석에 앉아 문초를 당하며 망신을 톡톡히 하였다.

최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은 미국이 내외에서 대대적이며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있는데 대하여,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기간에 감행한 미군의 만행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국가안전》의 구실밑에 민간인들을 체포구금하고 고문한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것으로서 절대로 묵과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군병사들이 전장에서 수많은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하였다. 꾸바와 베네수엘라, 이란대표들은 미국이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세계도처에서 저지르고있는 인권침해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중국과 로씨야대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기간 미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상을 해명할것을 요구하였다. 유럽동맹나라들도 미국에서 극형제도와 미성년범죄자들에 대한 종신감금제를 폐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동네북이 되여 다른 나라들은 물론 동맹국들한테서까지 두들겨맞았다.

유엔인권리사회가 이번에 력사상 처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인권기록을 가지고있는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것은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의 성격으로 보나 공정성의 견지에서 보나 천백번 정당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엄청난 인권범죄를 당반우에 올려놓고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며 이 나라, 저 나라에 삿대질하는것을 업으로, 또한 그것을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수단으로 삼아왔다. 그런 미국이 거꾸로 인권피고석에 나앉는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런것을 두고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졌다고 한다.

제멋대로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던 미국이 세계면전에서 흉악한 인권범죄자로서의 더러운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니 난처하게는 되였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미국대표단은 저들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의 고문,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였다. 미국무성 인권담당 차관보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관따나모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는 왕청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어 미국무성 법률고문이라는자는 오바마의 집권을 계기로 인권문제에서 그 무슨 《획기적전환》이 이룩되였다고 반박해나서기까지 하였다.

과시 인권유린왕초만이 할수 있는 뻔뻔스러운 변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권유린은 미국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을 퍼부어 평화적주민들을 마구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제 미싸일들과 폭탄들에 맞아 무참히 희생되고있다.

미국이 꾸바의 관따나모미군기지 감옥의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만행은 세상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미국은 수감자들을 때리거나 차디찬 독감방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것도 모자라 옷을 벗겨 얼음이 둥둥 떠있는 물통에 처넣어 온몸을 꽁꽁 얼게 하였다. 그런가하면 귀구멍에 불을 붙인 담배대를 밀어넣고 성적모욕을 주는 등 미국이 관따나모미군기지 감옥에서 감행한 인권범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방성의 자료에 의하면 관따나모미군기지에 감옥이 세워진이래 수많은 《혐의자》들이 여기에 감금되여있었으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몇년동안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현재도 이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여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이전 미국대통령 죠지 부쉬가 자서전에서 자기가 미중앙정보국이 9.11사건 관계자들에게 물고문을 가하는것을 승인했다고 실토한 사실을 실었다. 부쉬가 집권시기 인권유린행위를 허용한데 대해 제입으로 고백한것을 미국이 이제 와서 부인해야 그것은 공연한것이다.

내적자료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웹싸이트인 《위킬릭스》는 유엔인권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인권상황을 조목조목 까밝혔다. 올해 7월 7만 7 000여건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전쟁관련 미군의 내적자료를 폭로한데 이어 10월에는 40만건에 달하는 이라크전쟁관련 비밀문건을 폭로한 《위킬릭스》창설자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는 인권진상을 규명하려는 기미는커녕 전혀 반응이 없으며 오히려 《위킬릭스》와 거기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위협과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진실을 가리울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개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하였다. 당황망조한 미국은 《위킬릭스》의 내적자료공개로 하여 자국병사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였다고 하면서 제편에서 《위킬릭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망동까지 부렸다.

그러나 인권유린왕초가 제 허물을 가리우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도 그것은 헛된짓이다. 이번 유엔인권리사회 회의는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이 오늘에 와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인권문제》를 걸고 다른 민족의 국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력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것이 현실로 확증되였다.

미국은 이번에 당한 국제적인 망신과 봉변을 통해 자기가 저지른 인권범죄, 국권침해행위들에 대하여 곰곰히 돌이켜보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권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길로 나간다면 국제법정은 인권유린왕초를 엄정히 징벌할것이다.

리 현 도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웰남공안성 부상이 높이 칭송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부이 반 남 웰남공안성 부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표시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민족재생의 은인,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긍지높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는 만경대고향집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고 경애하는 주석의 혁명력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면서 김일성주석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흠모심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위대한 공적을 쌓으시였다.

전시된 선물들은 그분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이께서는 만민의 다함없는 신뢰를 받고계신다.

우리 웰남인민들도 김일성주석을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경애하는 호지명주석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웰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은 웰남인민의 친근한 동지이시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웰남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웰남인민은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웰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농 득 마잉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후 더욱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다.

방문기간 우리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목격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끼리라고 확신한다.

로 씨 야 통 신

평 양 화 장 품 공 장 소 개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이 11일 평양화장품공장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평양화장품공장이 만부하를 걸었다고 하면서 이 공장의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확장된 공장에서 비누와 치약, 크림을 비롯한 질좋은 화장품들이 생산되고 기능성화장품들이 새로 개발되고있는데 대하여, 이 공장제품들이 국내에서 커다란 인기를 끄는것은 물론 국외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03년 8월 5일 이 공장을 찾으시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통신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반제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인민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70년 11월 16일 수리아에서는 이전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의 지도밑에 시정운동이 있었다.

시정운동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념원의 반영으로서 수리아의 력사에서 전환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이날이 있어 수리아인민은 자주적이며 부강발전하는 새 력사의 창조자로 될수 있었다.

수리아인민은 시정운동후 오늘까지 투철한 반제자주의 리념을 지니고 새 사회건설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은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수리아인민의 자주권을 위협하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중동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리아를 저들의 중동지배전략실현의 주되는 장애물의 하나로 여기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지난 기간 수리아에 대해 당치 않게 트집을 잡으며 제재와 압력을 가하였다. 특히 유엔을 제쳐놓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제재는 한층 더 강화되였다.

미국은 수리아가 이라크침공을 반대하고 저들의 《반테로전》에 《협력》하지 않는다는것을 구실로 수리아가 테로를 《지원》한다느니, 《대량살상무기》와 미싸일계획을 추구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비방중상의 도수를 높이였다.

2005년에 레바논에서 이전 수상 하리리에 대한 암살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무턱대고 그것을 수리아와 억지로 련관시키면서 수리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깜빠니야를 벌렸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수법으로써도 수리아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지난 기간 수리아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력과 제재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낡은 사회의 유물을 가시고 사회적안정과 경제적발전을 이룩하였다.

수리아인민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에 의해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민족경제가 튼튼히 세워지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있다.

알곡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린자원이 풍부한 수리아는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으로 세계를 휩쓸고있는 식량위기에 대처해나가고있다. 수리아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응당한 힘을 넣고있다.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수리아는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승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있는 법이다. 수리아인민이 지난 40년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민족적번영의 길을 걸어온것은 시정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오늘도 수리아인민은 정의의 길, 자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고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에 강점당한 골란고원을 되찾고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에서 중동문제의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수리아의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은 우리는 의연 평화를 사랑하지만 《유태국가》와의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여있다, 수리아는 나라의 정책과 리익이 적들의 계획에 놀아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수리아는 아랍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광범한 세계사회계의 지지를 받고있다.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시정운동 40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수리아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사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자주권수호를 위한 이란의 강경한 립장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10일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나라의 핵권리를 끝까지 수호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이란은 자기의 핵권리를 놓고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것이며 이미 제안된 렬강들과의 회담에서 핵문제를 절대로 토의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기 나라는 선의의 손길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결과 속이 다른 손길은 단호히 쳐갈길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11일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가로막으려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있지만 그것은 이란인민의 핵개발의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의 핵문제는 이미 종결되였으며 이에 대해 더는 론의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 제1부대통령 모함마드 레자 라히미가 7일 까타르방문과정에 한 발언에서 이란은 적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서방이 제재와 압력으로 이란의 발전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고있지만 그것은 헛된짓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밝은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국가최고안전리사회 서기장 쎄예드 잘릴리가 9일 한 외교석상에서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계속되는 간섭책동으로 지역정세가 더욱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에 대처하여 지역나라들이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집단적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역나라들이 단결하여 적들의 위협책동을 짓부시고 지역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불법무도한 행위 규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빠스가 11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팔레스티나령토에 건설된 모든 유태인정착촌들은 처음부터 비법적인것이였다고 하면서 그는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은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군이 체포한 팔레스티나인들이 석방되기전에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란 있을수 없다고 밝히고 비법적인 정착촌건설과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군사적폭압만행을 당장 중지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8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1 300동의 유태인살림집을 또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이 평화보다 정착촌건설을 더 바라는 이스라엘의 진의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까밝혔다.

◇유엔주재 팔레스티나상임대표가 10일 유엔안보리사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1 300동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독립국가를 창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렬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미국딸라주도의 국제통화체계 개혁 주장

브라질재정상이 10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딸라주도의 현 국제통화체계를 개혁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취한 부당한 금융조치를 비난하면서 미국딸라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그는 미국딸라만이 아닌 다른 화폐들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통화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소아마비예방접종

아프리카의 중부지역 나라들에서 12일 소아마비예방접종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협조밑에 올해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접종깜빠니야기간에 민주꽁고와 꽁고, 앙골라에서 약 300만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 최근 이 지역에서 소아마비로 인한 사망자수가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부당한 처사 비난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얼마전 일본당국이 중국남부지역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어선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록화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 록화자료라는것이 사실의 진상을 고칠수 없으며 일본측 행위의 비법성을 가리우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어선의 항행을 방해하고 길을 가로막았으며 억류하였다고 하면서 그자체가 비법적인것으로서 중국의 령토주권과 중국어민의 정당한 권리를 심히 침해한것으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로씨야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마르겔로브가 최근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로씨야주재 일본대사를 림시 소환한 일본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로씨야대통령의 꾸릴렬도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이 취한 그와 같은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며 아무런 객관적근거도 없는 감정적인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의 예민한 반응은 매우 심각한 일본국내의 정치정세에 기인된다고 그는 까밝혔다.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필리핀녀성들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일본정부가 11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9월에 전국적으로 기계제품주문량이 그 전달에 비해 10.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문량감소로 기계제작업체들에서 경영형편이 악화되였다. 이보다 앞서 10일 덴쯔광고회사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기업체에서 리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1일 일본중앙은행은 올해 10월에 전국적으로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또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 그릇된 정책을 추구하고있는 현 정부에 대한 사회적불신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12일 지지통신은 최근에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률이 10월에 있은 조사때보다 11.4% 줄어들어 27.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현 정부발족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반대률은 12.6% 올랐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11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소근로자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긴축조치로 나라에서 실업률이 계속 증대되고있는데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고 그 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오스트랄리아인들속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한 비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0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11월현재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소비자신용지수가 전달에 비해 5.3% 떨어졌다 한다.

—프랑스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있다. 10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0월에 전국적으로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특히 에네르기가격이 크게 뛰여올랐다 한다.

—뛰르끼예에서 9월에 경상수지적자가 41억US$에 달하였다.

12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10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호시를 비롯한 여러곳에 쳐들어가 폭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1명의 팔레스티나립법리사회 성원과 11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해갔다.

한편 이날 가자지대에서 1명의 팔레스티나인로동자가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금연조치

뽈스까정부가 최근 새로운 금연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병원과 학교, 비행장 등 공공장소들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이 금지되며 그것을 어기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사고

—미국 알라스카주의 남부지역에서 9일 살림집화재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날 콜로라도주에서 달리던 뻐스가 방향을 잃고 길옆의 시설물을 들이받아 5명이 부상당하였다.

—영국 만체스터의 한 주민지역에서 2일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 14명이 부상을 입고 여러채의 살림집이 파손되였다.

같은 날 프랑스의 서부지역에서 살림집화재사고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6명의 사상자가 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제건설성과

◎중국의 베이징에서 시내교통조건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도건설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올해말까지 5개의 새 지하철도구간건설공사를 완공하게 된다. 이 구간들이 개통되면 시의 지하철도 총연장길이는 현재의 228㎞로부터 336㎞로 늘어나게 된다.

◎이란에서 현 이란년도의 첫 7개월동안에 승용차생산량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증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신문 《테헤란 타임스》가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무더기비피해

스리랑카의 서부주에서 10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11일현재 3만 6 000세대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였으며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피해지역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에 기록된 상해세계박람회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가 지난 10월 31일 페막되였다. 페막식이 중국의 상해세계박람회문화쎈터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페막식에는 온가보 중국국무원 총리와 국제전람국 의장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 국제기구대표들, 상해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온가보총리가 페막식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이번 상해세계박람회는 현대문명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세계박람회력사에 빛나는 장을 수놓았다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우수한 문명을 따라배우고 다른 나라들과의 호혜적협조를 심화시킴으로써 인류문명의 진보에 보다 큰 기여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상해세계박람회가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세계박람회력사에 뚜렷한 한페지를 남기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1851년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첫 세계박람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지난 시기 세계박람회는 주로 발전된 나라들이 주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전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발전도상나라인 중국에서 세계박람회가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240여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들이 참가한것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백수십년의 세계박람회력사에서 규모가 제일 큰것이라고 한다. 6개월동안에 연 7 000여만명이 상해세계박람회장을 참관하였다.

오늘 세계박람회는 새로운 상품이나 과학기술성과를 전시하고 거래하는 시장의 범위를 벗어나 과학기술, 사회발전,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류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성대한 모임으로,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국제적무대로 발전하였다.

상해세계박람회의 주제는 《도시, 더욱 아름다운 생활》이였다. 주제적성격에 맞게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국에서 온 박람회참가자측이 전시와 연단, 예술공연 등의 형식으로 도시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공동으로 탐구하고 토의하는것으로 진행되였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매개 나라들은 상해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황포강 량안에 전개된 박람회구역안에 자기 식의 독특한 건축물들을 지어놓고 각기 독자적인 주제밑에 자기 나라의 도시문화발전력사와 전망을 소개하였다.

우리 나라는 상해세계박람회에 《인민의 락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여 수도 평양의 모습을 박람회장에 꾸려놓았다. 조선관은 독특한 구성과 형식, 내용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며 경탄을 자아냈다.

상해세계박람회를 통하여 각국 정부와 인민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현대문명의 성과와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인류공동의 념원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중국은 상해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자기의 국력과 발전수준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중국당과 정부는 상해세계박람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중국은 상해세계박람회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며 박람회가 순조롭게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였다. 상해세계박람회가 성황리에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커다란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다. 상해세계박람회를 참관한 세상사람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인식과 리해를 깊이하고 날로 발전하는 세계박람회의 실효성을 느끼게 되였다.

지난 2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자국은 이번 상해세계박람회를 통하여 많은 외교적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면서 그 주되는 성과중의 하나가 수뇌외교, 민간외교, 록색외교, 문화외교라고 강조하였다.

상해세계박람회는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상해세계박람회는 세계박람회력사에 뚜렷이 새겨진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 희

에이즈방지노력

보쯔와나에서 에이즈방지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지금 주민들속에서 에이즈검진과 위생방역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15만 2 500여명의 에이즈환자 및 에이즈비루스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9일 이 나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밝혔다.

호흡기질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명피해

세계적으로 급성호흡기질병에 의해 해마다 425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9일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지진

—로씨야의 부랴찌야공화국에서 3일 리히터척도로 5.3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쎄베로바이깔스크시로부터 동쪽으로 45㎞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필리핀 루쏜섬의 서부지역 앞바다에서 10일 리히터척도로 5.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마닐라로부터 서북쪽으로 130㎞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ㄱ-01208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